

가축질병 발생정보 제 2 호

1987. 10. 2.
농촌진흥청장

농촌진흥청은 돼지콜레라 발생주의보를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.

돼지콜레라 주의보

최근 돼지가격의 하락추세에 따른 관리소홀과 환절기에 접어들어 경기, 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 및 경남지역에서 돼지콜레라가 발생하여 피해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번질 것이 우려되어 발생주의보를 발령하오니 양돈농가에서는 예방조치를 더욱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.

1. 주요증상

○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모든 돼지는 일령에 관계없이 발병하고 7~21일 사이에 거의 죽는다.

○체온이 40~41℃로 오르고 몇일이 지나 죽는 급성의 경우와 열이 일정치 않고 20~30일이 지나 죽는 만성의 경우도 있다.

○처음에 열이 나며 사료를 먹지 않고 곱이 섞인 굳은똥을 누다가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한다.

○눈이 충혈되고 눈꼽이 끼며 기침과 구토를 종종한다.

○몸에는 붉은 얼룩무늬가 생기고 뒷다리를 잘 못쓰고 비틀거리며 심한 호흡곤란을 일으키어 죽게 된다.

2. 예방조치

○새끼돼지를 시장이나 돼지 수집상으로부터 구입하지 말고 믿을 수 있는 돼지 기르는 농장에서 구입하여 2~3주간 따로 기르면서 예방주사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한다.

○돼지우리과 그 주변은 가성소다 등 강력한 소독약으로 계속 소독하고 외부인의 돈사 출입을 제한한다.

○이환돈은 신속히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당국의 지시에 따라 적절한 방역조치를 받아야 한다.

3. 예방주사

○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되고 있을 때(긴급할 때)

-분만 후 첫젖을 먹기전 새끼돼지에 주사
(초유전 면역법)

○가까운 양돈농가에 발생이 없을 때

-생후 30~40일령에 1차
-생후 50~60일령에 2차 } 두번 주사

○번식용 어미돼지

-접붙이기 2~4주전에 1회 주사

○주사는 어미돼지와 새끼돼지 구분없이 모두 귀뒷부분 피하나 뒷다리 근육내에 1ml를 놓는다.

○예방접종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잘 읽어본 후 지침에 따라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.